

奥三河の花祭 見聞記

金 容儀

2009년 9월에 北沢方邦의 『感性としての日本思想』(2002、藤原書店)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다. 北沢方邦는 이 책의 곳곳에서 神樂를 비롯한 神事藝能을 예로 들어, 日本人의 原初的 感性을 설명하고 있다. 때 마침 12월에 花祭를 견학할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필자는 北沢方邦가 강조한 「日本人의 原初的 感性」이란 관점에서 花祭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하 필자가 花祭를 견학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연구과제를 메모 형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日本語の「はな(花/華)」の多義性

우선 궁금한 것이 왜 花祭(はなまつり)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하는 점이다. 『大辞泉』에 의하면, 「はなまつり」란, 「(1) 4月8日の釈迦(しゃか)の誕生日に修する灌仏会(かんぶつえ)の通称。(2) 愛知県北設楽(きたしたら)郡を中心に、年末から正月にかけて行われる祭事。祭場の中央にかまどを築いて湯釜を据え、その周囲でさまざまな舞が行われる」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1)과 (2)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

花祭(はなまつり)의 「はな」는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早川孝太郎의 『花祭』에는 「花祭をたんに『はな』ということで、どこの『はな』何村の『はな』という。実はなんでもないことであるが、この言葉の半面には、ひとつの思想が働いていて、すなわちこの『はな』によって、それぞれの土地の気風なり趣味がそれに現われているとしたのである」(p.25)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はな」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大辞泉』에서 「はな」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 (1) 種子植物の有性生殖を行う器官。葉から変形した萼(がく)・花びら・雄しべ・雌しべおよび花軸からなる。この要素の有無により完全花と不完全花に、雄しべ・雌しべの有無により両性花と単性花に分けられる。受精して実を結び、種子を生じる。
- (2) 花をもつ植物。また、美の代表としてこれをいう語。
- (3) 桜の花。全ての花を代表する意で、平安時代後期に定着した言い方。
- (4) (2)のうち、神仏に供えるもの。枝葉だけの場合もある。
- (5) 造花。また、散華(さんげ)に用いる紙製の蓮の花びら。
- (6) 生け花。また、華道。「お一の師匠」
- (7) 花が咲くこと。また、その時期。多く、桜についていう。
- (8) 見かけを(1)にたとえていう語。
- (9) (1)の特徴になぞらえていう語。

華やかできらびやかなもの。中でも特に代表的で華やかなもの。《華やかで目立つところから》功名。誉れ。最もよい時期。また、盛んな事柄や、その時節。実質を伴わず、体裁ばかりよいこと。また、そのもの。

- (10) (1)に関わるもの。花札(はなふだ)。心付け。祝儀。

- (11) 世阿弥の能楽論で、演技・演奏が観客の感動を呼び起こす状態。また、その魅力。
- (12) 連歌で、花の定座。また、花の句。
- (13) 和歌・連歌・俳諧で、表現技巧や詞の華麗さ。内容の意の実（じつ）に対していう。
- (14) 《他に先がけて咲くところから》梅の花。
- (15) 花見。特に、桜の花にいう。
- (16) 誠実さのない、あだな人の心のたとえ。
- (17) 露草の花のしぼり汁。また、藍染めで、淡い藍色。はなだいろ。はないろ。
- (18) 華やかなさかりの若い男女。また、美女。転じて、遊女。
- (19) 「花籤（はなくじ）」に同じ。

이처럼 일본어의 「はな」라는 단어에는 다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はなまつり」의 「はな」는 어떤 항목과 관련이 있을까? 「はなまつり」가 신에게 奉納하는 神事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4) 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또한 「はなまつり」라는 문예적 장르를 고려한다면 (11) 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즉 『風姿花伝』의 「はな」와는 관련이 없는 것일까?

2 祭祀・芸能空間の構造

필자는 일본의 相撲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적이 있다. 大阪大学에 제출한 修士論文이 「伝承から見る相撲」였다. 그 때문인지 「はなまつり」가 행해지는 공간구조가 흥미로웠다. 相撲의 土俵에서 볼 수 있는 공간구조와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はなまつり」의 지붕 네 귀퉁이에는 土俵의 지붕에서 확인할 수 있는 青/東/春:白/西/秋:朱/南/夏:玄/北/冬라는 상징적 의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12월 14일 花祭会館을 방문했을 때에, 伊藤勝文관장의 설명을 통해서도 필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はなまつり」가 행해지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건너편 산기슭에 설치된 산신(山の神)을 모신 장소의 御幣의 색깔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写真1 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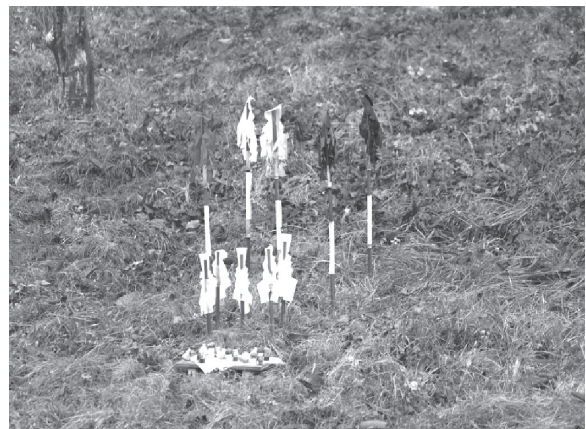


写真1 花祭の御幣

필자는 최근 (2월 14일, 15일, 16일)에 沖縄의 久高島에서 正月儀礼를 보고 왔다. 久高島에서는 아직 旧曆으로 正月을 지낸다. 久高島の 북쪽에 위치한 外間殿이란 곳에서 마을 단위의 正月儀礼가 행해진다. 이 正月儀礼에서는 外間殿의 천정에 붉은색 천을 치고 그 밑에서 의례를 진행한다. [写真2 参照] 동아시아 祭祀・芸能空間



写真2 久高島の 外間殿 천정에 설치된 붉은 천

의 우주론적 상징성, 오행사상과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舞童」の存在

이번 「はなまつり」 견학에서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입장할 때에 어른들이 어깨에 앉히고 들어오는 「舞童」의 존재이다. [写真3 参照]

「舞童」이란 뜻 그대로 「춤추는 아이」라는 의미로, 한국의 전통예능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男寺党이라 부르는 전문예능집단의 춤에 등장한다. [写真4] 는 野村伸一先生の『村山智順が見た朝鮮民俗』에 소개된 男寺党의 舞童의 사진이다.

필자는 2006년에 岡山県牛窓의 疫神社에서 행해지는 秋祭り에서 봉납하는 「唐子踊り」라는 예능을 견학한 적이 있다. 이 秋祭り에도 「舞童」이 등장한다. [写真5 参照]. 여기 등장하는 「舞童」은 근세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男寺党의 舞童, 「はなまつり」의 「舞童」, 「唐子踊り」의 「舞童」 등에 관해서 비교예능사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자 한다.

4 焼き畑との関連性?

이번에 견학한 「はなまつり」의 주된 내용은 「鬼退治」인 듯하다. 여기 등장하는 鬼는 어떤 존재인가? 예를 들면 일본의 馬場あき子が『鬼の研究』에서 시도한 鬼의 계열로 보자면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먼저 「はなまつり」에 등장하는 鬼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필자는 「はなまつり」가 화전(焼き畑)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즉 화전민들이 최초에 화전을 일구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鬼」로 상징되는 토지신(土地の神)을 물리치거나 제사 지내는 과정을 「はなまつり」를 통해 재현하면서, 마을의 역사로 기억하고 전승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단순한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はなまつり」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写真3 花祭 舞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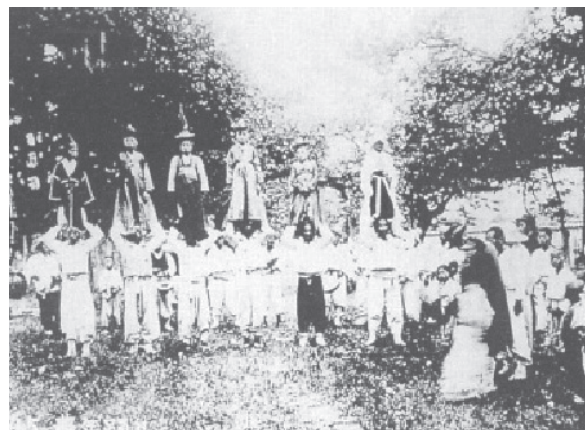


写真4 男寺党の舞童



写真5 岡山県牛窓 唐子踊りの舞童